

# 정율성 음악으로 중국에 '광주' 알렸다

**창사시 정율성 음악축제**  
아리랑·농악 공연 등 통해  
호남 전통·현대 문화 소개  
광주시 동·남구·화순 참여

호남민의 삶과 정서가 서려있는 광주의 전통·현대 문화가 중국 후난(湖南)성 창사(長沙)시의 밤을 밝혔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정율성 음악축제 음악공연'이 이날 저녁 중국 창사시 후난대극장에서 1500여 명의 관객이 운집한 가운데 열렸다.

광주시에 주최하고 광주 문화재단이 주관한 이번 공연은 정율성 선생의 음악 세계를 조명하고, 이를 통해 광주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년 광주에서 개최됐던 음악공연은 올해 처음으로 중국 창사시에 열렸다.

광주 출신인 정율성 선생은 중국 3대 음악가이자 중국인 1억명이 뽑은 '신중국 창건영웅 100인'에 선정됐으며, 중국에선 '혁명음악의 대부', '군가의 아버지'로 불린다.

지난달 중국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전 70주년(전승절)' 열병식에서 울려 퍼진 '중국인민해방군행진곡(일명 팔로군행진곡)'도 정 선생이 작곡했다.

이날 공연의 서막은 시립국악관현악단 '춤 위한 간지경'으로 시작했다. 간지경은 꿩소리 소리의 의성어인 '간지경 개경'의 소리를 흉내 낸 것으로, 호남지방 농민들의 삶과 정서가 서려있는 곡이다.

이어 순천풍덕초등학교 합창단이 정율



광주시에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한 '정율성 음악축제 음악공연'이 17일 저녁 중국 창사시 후난대극장에서 1500여 명의 관객이 운집한 가운데 열렸다. <광주시 제공>

성 선생의 음악인 '평화의 비둘기' '우리는 행복해요' '아름다운 나라'를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의 반주에 맞춰 공연했다.

특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를 예술적으로 표현한 광주 홍보영상 상영과 함께 성주풀이와 진도아리랑 공연으로 중국인들에게 남도의 아름다운 소리를 선사했다.

마지막 공연은 아리랑 대합창곡을 전 출연자가 나와 합창함으로써 후난대극장을 가득 메운 1500여 명 관객들로부터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공연에는 윤장현 광주시장과 조영표 광주시회의장, 노희용 동구청장,

최영호 남구청장, 구종근 화순군수 등이 참석했다. 정율성 선생의 출생지 논란으로 갈등을 빚었던 광주 동구와 남구, 정 선생이 어린 시절을 보낸 화순군 단체장들이 기념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한 뒤 모두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한편, 후형화 창사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환영 만찬에서 윤장현 광주시장은 "문화예술은 국경과 이념, 민족 등을 초월해 서로를 이해하고 우호를 느끼며 교류를 확대하는 중요한 매개체"라고 강조한 뒤 "광주 출신인 정율성 선생이 80여 년 전 낯선 중국 땅에 첫발을 내 디딘 후 중국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되신 것처럼 선생의 고향인 광주는 중국의 의미

있는 오랜 친구인 '라오펑오우'(老朋友)가 될 것임을 확인한다"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매년 추진하는 '정율성 음악축제'가 세계 최고의 음악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할 예정이며, 정율성 선생을 문화·관광 콘텐츠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가 열린 창사시는 후난성 중부에 위치한 3000여년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가진 유서 깊은 도시로서 700만명의 인구와 인근에 20세기 근·현대사의 큰 획을 그었던 모택동 주석 생가가 있다. 또한, 관광·물류·자동차 산업의 중심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후난성의 성도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고흥서 연어 연종 대량양식 국내 첫 성공

연어류인 바다송어의 대량 양식이 가능하게 됐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고흥지원이 연어류 바다송어의 수급 대체를 위해 양식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 고흥지역 양식어가에 보급한 결과 최근 성공했기 때문이다.

17일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 육상양식장에 어린 바다송어 600~700g을 입식했는데, 1년만에 3~4kg으로 자라 출하를 앞두고 있다. 모두 20t 이상으로, 해당 어가는 전국 대형마트 등에 kg당 1만1000~1만3000원에 판매하기로 했다.

그동안 냉수성인 연어과어류 양식은 여름철 주요 양식어종 판매 이후 유통가두리를 활용해 수온이 낮은 동절기(11~5월)를 중심으로 운영돼 연종 양식에 제한이 있었다. 또 계절상품 이미지가 강해 시장

에서 원하는 대형어 공급 및 연종 물량 공급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고흥지원은 꾸준한 선행 연구와 시험연구사업을 통해 육상양식장에서 연종 생산하는 양식기술을 개발해 양식어가에 보급, 이번에 3kg 이상 대형어까지 키워냈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바다송어 산업 활성화와 양식어종 다양화를 위해 '바다송어 산업연구센터'를 건립했으며, 고흥을 '바다송어·연어산업 특구'로 육성할 방침이다.

송어는 연어과어류 가운데 대서양 연어에 이어 2번째로 큰 시장 규모(약 80만t)를 형성하고 있는 어종이다. 선명한 붉은색 육질을 가지고 있어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오랜지색 연어보다 미식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윤현식기자 chadol@>

## "광주시청 잔디광장서 '착한 결혼식' 하세요"

시, 4~6월·9~10월 접수

광주시청 야외 잔디광장이 내년 봄부터 예비부부들의 결혼식장으로 개방된다. 광주시는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방안의 하나로 '빛고을 착한 결혼식'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시는 내년 봄(4~6월), 가을(9~10월)을 중심으로 신청자를 받아 예비부부에게 시청 야외 잔디광장을 개방할 방침이다. 우천 등 기상상황에 대비해 시청 1층 로비와 잔디광장을 연중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시는 사업에 참여할 기관과 복수의 웨딩

업체 등을 선정하고 신청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예비부부는 웨딩업체와 협의해 비용을 지급하고 예식을 진행하게 되며, 시에는 장소 이용료 명목으로 몇만원의 상징적 금액만 내면 된다.

2013년 시민청 개관과 함께 시민청, 서초구 서울연구원 야외 뒤뜰을 결혼식장으로 활용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은 서울시 사례를 본딴 것이다. '착한 결혼식'이라는 콘셉트로 시민청의 '착한 결혼식'과 유사하다. 광주시 공무원들은 지난 15일 100번째 시민청 결혼식을 참관하기도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수저 되물림' 갈수록 늘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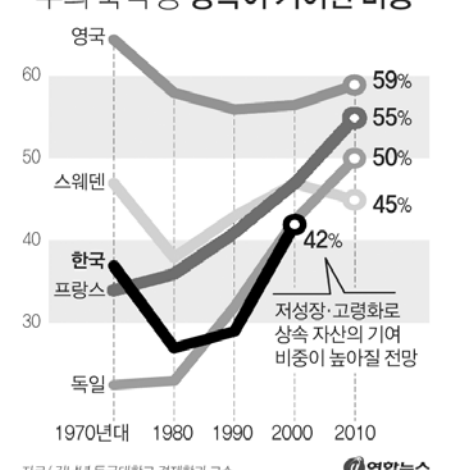
자산 형성에 상속 비중 42%

부모의 재산에 따라 금·은·동수저에서 흙수저까지 자식의 경제적 지위가 결정된다는 이른바 '수저 계급론'이 화제다. 한국에선 아직 민간이 축적한 부(富)에서 상속·증여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성장·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개인의 노력으로 번 소득'보다 '상속받은 자산'의 중요성이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내용은 김낙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17일 공개한 '한국에서의 부와 상속, 1970~2013' 논문에 담겼다.

김 교수에 따르면, 상속·증여가 전체 자산 형성에 기여한 비중은 1980년대 연평균 27.0%에 불과했지만 1990년대 29.0%가 됐고 2000년대에는 42.0%까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이 쌓은 자산이 모

부의 축적 중 상속이 기여한 비중



두 100만원이라고 치면 1980년대에는 27만원이 부모에게 상속받은 것이고 나머지 73만원은 저축 등으로 모은 것이었지만 상속으로 쌓인 자산이 20년 만에 42만원으로 불어난 것이다. <연합뉴스>

## 기내 위급환자 돌본 '의사 윤장현'

60대 승객 의식 되찾아



의사 출신인 윤장현 광주시장이 해의 출장중 비행기 안에서 위급환자를 돌본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윤 시장이 전날 저녁 인천에서 중국 창사시를 가기 위해 탑승한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위급환자가 발생했다. 의사가 필요하다'는 다급한 목소리의 기내방송을 들었다는 것이다.

윤 시장은 곧장 환자가 있다는 뒷좌석으로 가 60대 보이는 승객을 응급 조치를 했다. <사진>

윤 시장이 좌석으로 다가갔을 때 이 승객은 얼굴이 창백하고 호흡근리를 겪고 있었으며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

였다. 윤 시장은 곧바로 환자의 맥박 등을 살피고 자세를 교정하고 팔다리를 주무르는 등 응급조치를 했다.

5분여 뒤 이 환자는 의식을 되찾았으며, 윤 시장은 이후에도 10여분간 환자 곁에서 호전된 것을 지켜본 뒤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이 승객은 의식을 되찾은 후 "시장님의 빠른 조치로 회복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안과 의사 출신인 윤 시장은 정율성 음악제 참석 차 중국으로 출장을 가던 길이었다. <최권일기자 cki@>

## IS 테러대상 지목 美 '초비상'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 국가'(IS)가 미국을 다음 테러 대상국으로 지목하면서 미국의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미국 곳곳에서는 작은 이슬람 정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워싱턴DC에서는 16일(현지시간) 오전 주요 도로가 폐쇄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자정께 총성이 울린 데 이어 한 여성이 빌딩 안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오전까지 저항한 데 따른 조치로 평소보다 훨씬 심한 통제가 뒤따랐다.

매사추세츠 주 케임브리지의 하버드대에서는 이날 낮 웹사이트를 통해 "미확인 폭파 위협을 받았다"며 4개 빌딩에 있는 교직원과 학생들을 긴급 대피시켰다. <연합뉴스>

당신의 광장/젊음의 광장! U-square

U-square점

YONAMJA

STEAK/PASTA/PIZZA/BEER

- STEAK ₩12,500~
- PASTA ₩11,900~
- PILAF ₩7,900~
- PIZZA ₩11,600~
- SALAD ₩9,900~

100% Handmade Pizza

☎062)673-797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사기·성범죄·교통사고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대여금·공사대금·손해배상  
보험금 등 각종 금융사건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산은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는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미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비용 無 ☑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